

한국제임스조이스학회 30년을 돌아보며

김 종 건

I

오늘 <제임스 조이스 학회> 30주년을 애써 회고하고 그 의미를 두고자하는 것은 그 뿌리를 자양함으로써, 내일의 보다 충실한 열매를 수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나아가, 이는 지금까지의 그의 발전의 자취를 짚어보고, 미래의 새롭고 참된 구상을 위한 필요 때문이기도 합니다.

조이스 문학은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빠져 나오기는 더 어렵다고들 합니다. 작가가 자신이 그의 문학을 위해 우리에게 일생을 바치라고 요구했습니다만, 그런데도 하나의 일생은 모자란 것 같고, 또 하나의 일생을 바쳐야 할 것 같습니다. 조이스 공부를 시작한지, 귀중한 세월을 어영부영 축만 낸 듯, 벌써 반세기가 훌쩍 흘러가 버렸습니다.

오늘 이 싱그러운 5월, 녹음방초의 계절을 맞아, 학회 30주년을 기념하는 모두에 서서, 여기 그의 초기 시 「성직」(“Holy Office”)의 한 구절을 읊어보려 합니다.

나는 두려움 없이, 숙명처럼 서 있노라,

.....

청어 뼈와도 같이 냉철하게,

사슴의 뿔이 거기 공중에 뻗어있는,

산마루처럼 굳세게.

1904년 유럽으로 떠나기 직전에 쓴 이 시에서 젊은 조이스는 자신을 아리스토텔레스 및 기독교의 의식과 연결하며 자신의 성직이야말로 말로 감정의 정확요 초탈의 탈속임을 부르짖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은 양천묵객(仰天墨客)인양, 뿔을 공중

에 뻔뻔이는 사슴처럼 홀로 산정에 서서, 미래의 야망과 절의(節義)를 고고의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는 이렇게 에이즈를 비롯한 당대 조국의 위선적이고 “새침한” 작가들과 자신을 구별하였습니다.

II

지난 2004년 11월 27일 <한국 제임스 조이스 학회>가 주최한 제1회 국제학술대회의 초빙 연사로 왔던 마고트 노리스(Margot Norris) 교수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의 조이스 학자들은 다른 나라와 어떻게 다른가?”라는 기자 질문에, “놀라운 것은 한국에는 조이스 작품들이 매우 일찍부터 번역되었다는 점이다. 1941년에 조이스가 사망했는데, 한국은 1950년대부터 이미 『더블린 사람들』, 『젊은 예술가의 초상』 같은 작품을 번역했다. 조이스 언어의 난해함을 생각할 때 한국의 생동감은 경이롭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일찍이 반세기 전 1960년대에 조이스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이어 70년대 말에 <조이스 학회>를 서둘러 만들었습니다.

이에 즈음하여, 우리들의 기억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꼭 반세기 전 1960년대 초에 우리에게 처음 『율리시스』를 가르쳐 준 조지 레이너(George Rainer) 교수님이 바로 그 분입니다. 지금은 아마도 세상을 떠나셨겠지요. 당시 우리들은 그분의 제자들이었고, 그분에게서 난생 처음으로 『율리시스』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때는 정확히 1960년 가을 학기였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레이너 교수님의 강의를 청강하기 위해서 당시 공동 구입한 모던 라이브러리 판 『율리시스』 원본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1960년 9월 24일’이란 날짜가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레이너 교수님은 젊음의 파격과 재기 뻔뻔이는 제자들을 당신의 조이스 제자로 삼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기억에 새롭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는 그를 상련(相憐)의 정염(情念)으로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이스 학회> 설립 이래, 이처럼 국내의 조이스 전공자가 많이 배출되고, 이른바 ‘조이스 산업’(Joyce Industry)이 우리나라에 번성함은 바로 그분의 공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뒤로 세월은 흘러, 1970년대에 접어들었고, 따라서 그때 그 시절, 조이스를 계속 공부하고 전공하려 했던 사람들은 아마 5, 6명 정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그들은 다 노령의 백발 학자들이 되었으니, 한 때는 연구에 몰두함으로써, 스스로를 가장 존경스러워 했던 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 중 누군가가 불쑥 말했습니다.

-우리 <조이스 학회>를 하나 만듭시다.

그러자 그 중 다른 한 사람이 대꾸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시기상조요. 연구자가 몇 사람이냐 된다고?

그러나, 고집스런 발의자는 자신의 주장을 외골수로 관철하려고 무던히 애썼으니, 그리하여 지금부터 만 30년 전, 당시 <조선일보>(1979년 11월 22일자)의 “십자로”란은 우리의 <조이스 학회> 탄생을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금세기의 가장 위대한 작가의 한 사람이며, 가장 난해한 작가로 알려져 있는 아일랜드 출신의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와 그 주변 영미 작가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한국 제임스 조이스 학회>(James Joyce Society of Korea: JJSK)가 지난 [11월] 14일 창립되어 학계의 화제가 되고 있다.

조이스 문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내 대학 교수 및 강사(정회원), 대학원 재학생(준회원),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들(명예회원)로 구성될 이 학회는, 앞으로 조이스 및 주변 영미 작가들에 관한 연구 자료의 수집, 보관 및 교류, 간행, 발표회, 토론회 개최, 국제 학회와 세미나 참여 등의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그 뒤로 우리 회원들은 이상과 같은 취지로 조이스 연구를, 우정과 문정(文情)을 서로 나누며 성실히 수행했고 그 성과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모두들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어 학회의 회칙이 수립되었는바, 당시 그의 초안을 마련한 사람은 정정호 총무로, 현재 <한국 영어영문학회> 회장이십니다. 이 기회에 그 분의 노고를 치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어 이듬 해 1981년 몇몇 분들과 함께 경북대학교에서 <조이스 학회> 주최로 열린 최초의 심포지엄 발표를 위해 우리는 버스를 타고 그곳으로 처녀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초기의 학회 출범은 처음부터 암초에 부딪친 느낌이었고, 한 점 고운(孤雲)처럼 고독한 자의 외로운 항해요, 망망대해의 일엽편주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은

맨주먹으로 시작한 경험 없는 사업가가 자신의 무능과 부덕을 미처 감지하지 못하고 홀로 사업을 시작하는 오만과 만용인 듯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우리는 조금도 자탄하지 않았고, 세상에 빛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희랍 신화의 프로메테우스적 고통과 인고가 따르리라, 마음으로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예수를 믿어라, 여러분”하고 외쳐대는 서울 역 광장의 전도사처럼, 우리는 캠퍼스에서 만나는 학생마다 “조이스를 공부하라, 그대들이여”하고 외쳤고, 그를 신앙처럼 독려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모두는 조이스를 열심히 공부했고, 처음부터 푹푹 뭉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초창기 “블룸즈데이”(Bloomsday)를 위한 행사를 시작했고, 그 후 오늘까지 거의 매년 발표회를 쉬지 않고 해왔습니다.

어느 해였던가요. 오늘날처럼 성 패트릭의 기념행사가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 주최로 서울의 힐튼 호텔에서 열렸는데, 그 곳에 참가한 수많은 내빈들은 아일랜드는 알아도 조이스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 중에는 당시 한국의 아일랜드 명예대사요, 국내 굴지의 재벌 총수도 끼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염치불문하고 그분에게 비장하게 접근하여 학회의 취지를 설명하고 재정적 도움을 간청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우리들의 몰염치한 비분(非分)이었습니다. 그때 그분의 “연구해 봅시다!”라는 뭔가 암시성의 여운은 우리의 귀를 오긋하게 했습니다. 며칠 뒤에 우리는 그분의 어마어마한 회사 빌딩을 찾았고, 그분의 비서관에게 전날의 취지를 알린 뒤 회장님의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면담은 거절당했고 그 대신 학회 행사의 저녁 회식에 음료(동양 최대의 맥주 회사이기에)를 제공하겠다는 전갈을 받았을 뿐, 더 이상의 언급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몹시 실망했고 우리의 작은 자존심도극도로 상했으며 어리석게도 분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곰곰이 생각하니 그것 또한 우리의 지나친 의욕의 우행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러나 초창기 우리 학회는 나름대로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한국 영어영문학회>와 전문 학회로서 <세익스피어 학회> 하나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후자는 만사 휴업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회의 활발한 가동이 그들에게 새로운 자극을 준 듯 했습니다. 그 후로 (여러분 오늘날 아시다시피) 1990년대 군소 전문학회가 우후준순적으로 사방에서 솟아났고, 지금은 50여개의 학회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III

우리 학회의 초기 활동은 앞서 언급한 대로, “블룸즈데이”의 강연과 심포지엄으로 시작하였는데, 그 취지는 조이스를 될 수 있는 한 일반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공개강좌 형식을 띠었습니다. 그리하여 첫 심포지엄이 서울의 미국 문화원 강당에서 개최되었고, 그 후로 1980년에서 1993까지, 13년 동안 전후 11회의 강연회가 그곳에서 열렸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 대부분은 당시 너나 할 것 없이 이 심포지엄의 강연자들이었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청중의 반응은 이외로 좋았고, 우리나라 영문학의 모체인 <한국 영문학회>로부터 격려와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상의 심포지엄(국내외)중 중요한 몇몇을 소개하려합니다.

(1) 일시: 1980년 6월 16일(월) 오후 4-6시

장소: 미국문화원

연사: 1. 박희진 교수(서울대) 4:00-4:50:

“현대 심리 소설의 계보”- Faulkner, Woolf, Joyce를 중심으로”

2. Vernon Hall 교수 5:00-5:50: “Ulysses에 있어서 EPPS’S의 의미”

여기 학회에 처음으로 초청된 외국인으로서 버논 홀(Vernon Hall)은 위스칸신대(Madison)의 교수로, <조이스 학회>의 창립 연사로 초청된 것을 명예롭다고 했으며, 그 후 학회 발전을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박희진 교수는 학회 창설 멤버로, 현재 우리나라 버지니아 울프(V. Woolf) 연구의 태두입니다. 우리들은 학회 30주년을 맞이하여 초창기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1982년 1월 26일자 <조선일보>는 우리의 <조이스 학회>가 제보한 “조이스 탄생 100주년”에 관해 해외 문단 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습니다.

오는 2월 2일은 금세기의 거장 작가 제임스 조이스의 탄생 1백주년. 세계의 학계와 문단은 이를 계기로 그의 문학에 대한 연구 및 재평가 작업이 어느 때 보다 활기를 띠고 있으며, <한국 조이스 학회>도 세미나 등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3) 1986년 6월 5일에는 미국문화원에서 국내 처음으로 “근대 아일랜드 문학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는데, 이 또한 동일 날짜의 같은 일간지에 다음과 같이 소개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걸리버 여행기』의 작가 J. 스유프트를 비롯하여, 에이츠, 『율리시스』의 J. 조이스, 『고도를 기다리며』의 작가 S. 베케트, 버나드 쇼, 최근의 노벨 수상작가 히니 등, 세계적인 문인들을 배출한 아일랜드 문학에의 재조명은 우리나라의 전통, 인습, 감정 및 정치적 역사적 상황이 비슷한 점들에서 우리문단의 관심을 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이들 작가에 대한 소개와 아일랜드 문학의 한국 이입 경유, 한국 문학과와의 비교, 그들 특유의 희비극적 전통 등을 폭넓게 조명한다. 고려대 여석기 교수가 “에이츠의 시극과 노오 극”을 발표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태주(단국대), 예영수(한신대), 김치규(고려대), 김병철(중앙대)이 각각 주제별 발표에 참가한다.

여기 이미 고인이 된 김병철 교수는 남달리 우리의 학회를 사랑하였기에, 지금 우리는 지하에 계신 그분의 영령에 애련(哀憐)의 정으로 재삼 조의를 표합니다. “당신이며, 고이 잠드소서!”

(4) 1989년에는 조이스 학회 창립 10주년을 맞아, 우리의 논문이 1990년 미국의 조이스 전문지인 *James Joyce Quarterly(JJQ)*지의 봄호에 게재되었고, 당시 이 글은 「한국의 조이스 연구」 “Joycean Study in Korea”라는 제하에, 그 연구 현황과 우리들의 미래의 포부를 다음과 같이 결구했습니다.

[They] have been torn by conflicting doubts and have indeed been tormented with the struggle between body and mind. Yet, despite it all, the society continuously finds itself returning to a voice deep within saying, “and yes I said yes I will Yes.”

국제 전문지에 게재된 것은 한국의 조이스 연구 현황을 세계에 최초로 알린 모멘트가 되었습니다. 그 후 한참 뒤 2004년, 여러분도 기억하시피, 서울에서 열린 “The 200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James Joyce and the Humanities, Seoul”에서 발표된 국내외 학자들의 논문들에 대한 엘런 캐롤 존스(Ellen Carol Jones) 교수의 논평이, “an apogean humanity of beings created in varying forms”라는 부제

를 달고, 동명의 계간지 41호(pp. 15-18)에 그 뒤를 이어 게재되었습니다.

(5) 1990년에는 <조이스 학회>가 한국의 아일랜드 대사관을 통해 당시 아일랜드 대통령에게 조이스 작품의 번역본과 학회의 현황을 전달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당시 여성 대통령이었던 메리 여사(그의 게일어의 서명은 읽을 수 가 없는지라)는 격려의 친서를 보내왔습니다. 이를 전달하기 위해 검정 세단 차에 녹색, 오렌지 색, 백색의 3원색 아일랜드 국기를 휘날리며 당시 로난(Ronan) 주한 대사각서의 연구실을 방문했던 일은 많은 학생들의 감탄을 불러왔고, 우리에게 더없는 영광과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의 정례 “블룸즈데이”행사와 학회를 위한 그들의 협조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6) 1991년 6월 20일에는 조이스 서거 50주기 및 “블룸즈데이” 87주년을 기념하여 우리 학회의 큰 심포지엄이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학회가 첨단적이요 참신한 문학 이론을 전국의 학계에 최초로 알리는 계기가 된 듯 했습니다. 당시의 심포지엄 주제는 “조이스, Modernism/Postmodernism”이었고 발표 논문들은 “조이스와 라캉”(민태운), “『율리시스』와 포스트모던 상상력”(정정호), “조이스와 박찬”(김옥동), “悔恨의 回還: Chandler의 경우”(석경정) 등이었습니다.

(7) 1993년 6월, 4, 5 양일간은 또 다른 “블룸즈데이”기념을 위해 헌납되었고, “조이스와 현대 미국 작가”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이 열렸으며 권택영, 이귀우, 박엽, 전호중 등이 외래 연사로 초빙되었습니다.

(8) 1994년 5월 2일에는 “아일랜드 민족주의와 문예부흥”이란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김영민의 “Yeats와 타자,” 황훈성의 “Beckett 극작술의 현재적 의미,” 김상효의 “조이스 작품의 해체주의적 접근”등이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이때 멀리 아일랜드에서 초빙된 어거스틴 마틴(Augustine Martin: UCD) 교수의 고무적인 강연인, “조이스와 민족주의” 및 “Yeats’s Outlook from the Tower”는 우리에게는 물론, <한국 영문학학회>의 연례학술대회(성신여대 개최)에 아일랜드 문학, 특히 조이스에 관한 연구 현황을 초유로 제공함으로써 많은 회원들과 전공자들을 감탄시켰습니다.

(9) 이어 1996년에는 “조이스 서거 50주기”와 “<조이스 학회> 설립 17주년”을 기념하여 “아일랜드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 심포지엄”이 열렸고, 이에 대해 동년 6월 5일자 <동아일보>는 “포스트모더니즘을 씨 뿌린 혁명가”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이 크게 실었습니다.

20세기의 문학뿐만 아니라 예술의 거의 모든 분야, 그리고 인문과학의 여러 분야에까지 심대한 영향을 끼친 제임스 조이스. 그의 서거 50주년을 맞이하여, 인간을 가장 신(紳)답게 만들기 위해 문학이 가능한 모든 가능성을 총동원한 그의 불멸의 작품들인 『율리시스』 및 『피네간의 경야』 운운...

이상으로 학회가 그 동안 실시한 중요 심포지엄과 강연회들을 돌아보았는데, 1979년 학회 시작 이래 1999년까지 과거 20년 동안 총 강연회수는 연 17회에 달했고, 초청된 연사는 모두 합쳐 83명에 달했습니다. 그 중 외국인 강사는 모두 5명으로, 버논 홀, 머레이(Murray: 아일랜드 대사), 오러크(O'Rourke: 아일랜드인 신부), 마틴, 오그라디(O'Grady: 미국인 교수) 등으로, 이들은 모두 저명한 학자들이었습니다.

심포지엄 이외에 초창기 우리 학회의 두 번째 사업은 학술지 발행이었습니다. 정기 연구 간행지인 『제임스 조이스 저널』(James Joyce Journal. JJ)이 1987년 가을에 창간되어 같은 해 그 첫 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이 창간호에 당시 네 사람이 기고했는데, 그 중에는 미국의 저명한 조이스 학자 토머스 스테일리(Thomas Staley) 박사의 글도 끼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는 오늘 우리의 자랑인 동명의 『제임스 조이스 저널』의 모체가 되었고, 그 후 오늘날까지 국내 학회지 사상 손꼽는 권위지로 성장했으며, 2009년 5월 현재(22년에 걸쳐), 총 23권이 발간되었고 그 곳에 실린 논문의 편수는 약 210편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어 2001년 7월호부터 오늘날까지 여름, 겨울로 년 2회에 걸쳐 학회지를 증보 및 확대한 일은 회원 여러분의 활발한 연구를 대변했고, 지금도 그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제임스 조이스 저널』의 2004년, 2006년, 2008년의 각 겨울호는 순수 영문 논문들의 발표지로 진일보했는데, 여기에는 앞서 3회에 걸친 국제회의에서 발표된, 모두 13편의 논문들이 게재되었습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자들인, Margot Norris, Morris Beja, Emer Nolan, Shigeo Shimizu, Eishiro Ito, Kyoko Miyata, Liu Xiangyu, Kunliang Chuang, Richard Brown, Yen-Yen Hsiao 등 총 6개국에서 13명의 외국인이 발표한 논문들의 결집서로서 오늘날 우리 학회를 국제무대에 등장시킨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요 쾌거가 되었습니다. 이어 2004년 “블룸즈데이 100주년”을 맞이하여 더블린에서 열린 <조이스 국제회의>에 우리 모두를 대

표하여 한국의 젊은 조이스 학자들이 대거 참가했고, 탁월한 논문들을 발표함으로써 우리의 조이스 연구를 세계 학계에 저만치 앞섰습니다.

초창기 학회의 세 번째 사업으로 <조이스 서머스쿨>(Joyce Summer School)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의 또 하나의 학구적 사업이요, 한국 영어영문학회의 초유의 일로서로, 지금은 거의 휴교 상태입니다만, 당시 회원 상호간의 연구 진작과 후배양성이란 특별한 의미와 건전한 합리성을 지닌 야심찬 행사로 기획되었습니다. 1997-2003년 사이 전후 7회에 걸쳐 열린 이 행사에는 48명의 연사와 연 인원 약 300명의 수강생들이 참가했습니다. 특히 당시 서울대 교수였던 석경징 강사는 단 한 번도 결강하지 않고 강연에 참가함으로써 우리에게 격려와 열의를 보여주었는데, 이 기회를 빌려 그 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율리시스』 독회>(Ulysses Reading)를 2002년 9월부터 시작하여 최근 7년간 60여회에 걸쳐 절찬리에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많은 전문 학회들이 있습니다만, 이는 여타의 학회의 추종을 불허하는 학구의 귀중한 본보기가 아닌가하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의 정착은, 앞서 국제회의와 함께 그 동안 3, 4대의 김길중 회장님과 편집진들의 노고의 결과이며 우리 학회의 중흥을 기약하는 유원한 기틀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독회 진행자들을 비롯하여 독회 내용을 정리한 많은 회원들의 희생적인 노고와 순수무념의 정성이 어려 있습니다.

IV

이상 지금까지 우리들의 자랑이요, 보람과 노력의 결정체인 <조이스 학회>의 지난 30년을 겸허하고 진솔한 마음으로 간단히 회고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집념으로 일군, 이 결실과 유산은 참으로 값진 우리 모두의 자산으로 다 함께 경하해 마지않습니다. 특히 그동안 진선주, 김길중, 전은경, 홍덕선 등 전 현직 회장님들의 노고는 너무나도 지극하였고, 절실한 자기희생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해탈자와 같은 무욕의 자기 소모자들로 여기 이런 유의 찬사는 단지 그 사족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오늘날 우리 학회는 앞서 네 회장님들을 비롯하여, 이종일, 엄미숙, 민태운, 박성수, 임재오, 안정숙, 김상호, 윤희환, 이인기, 남기현, 최석무, 오길영, 송인영, 손승희, 김철수, 박윤기, 박진훈, 이강훈, 최희재, 박대철, 김상욱, 김석, 정성희, 길혜령, 김경숙, 김은숙, 강서정, 정인경, 이영심 등... 순백의 설원 위를 비추는 기라성 같은 젊은 학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 학회의 귀중한 자산이요 보고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자기 스스로 생산하는 인물들이요, 모두 활발하게 싹트는 힘으로 풍요롭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과거의 아련한 잠재력이 아니라 당장의 살아있는 실체들인 것입니다. 여기에 더 이상의 중언부언이 굳이 필요하겠습니까?

조이스는 그의 반소경과 딸의 정신분열증의 전기적 결합에도 불구하고, 17년의 세월을 심내하여 일군 그의 노작, 자신의 걸작이라고 한사코 주장했던, 『피네간의 경야』를 마침내 완성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의 당면한 연구 과제가 아닌가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는 *JJQ*가 입증하듯 ‘경야 사업’ (*Wake Industry*)이 한창입니다. 그것은 정녕 ‘읽을 수 없음’(unreadable) 책일까요? 그의 문학의 극한, 선악이 대결하는 현대판 묵시록적 현장, 그리고 그의 난삽한 “우주어”(universal language)는 의사 전달의 도구만이 아니요 그 하나하나를 쪼개고 고루고 더듬어야 하는 공예품인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젊은 스티븐 데달러스(Stephen Dedalus)가 말한 대로, “영혼의 대장간에서,” 영겁의 종을 주조하는 종장(鐘匠)이 되어야 하나 봅니다. 앞으로 10여년이 흐르면, 그것은 “읽을 수 있는,” 몰아(沒我)의 탐본(槌本)이 되지 않을까요? 그 지난한 문학적 금기와의 싸움에 대해, 우리의 멀고 먼 희망, 절망 같은 희망, 절망 속에 희망이 있으리라는 희망을 걸고, 땅을 경작하고 일구는 일념으로 그것이 주는 고결한 미감과 강력한 정서를 향유하도록 노력합시다. 그것이 우리들의 실존적 초상이요, 적성에 맞는 쾌연(快然)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학회는 이제 타 학회의 전범으로서 요지부동한 위치를 점령했고, 오직 미래의 발전만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는 우리 모두의 꿈의 결정이요, 우리들의 학문에 대한 끈끈한 성실성과 서로에 대한 다정한 친화력이 결집된 결정체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L. 블룸(Bloom)이 저 밤하늘의 별을 세듯이 끝없는 영원애로, 먼 훗날 아쉬운 회한(悔恨)이 없도록, 맥맥이 전진합시다.

회고는 과거지사요, 과거는 죽은 것. 우리는 어제의 쓰리고 무참함을 일소하

고 오늘 이 싱그러운 녹색의 계절에 향풍(香風)이 새들의 울성(慄聲)을 탄주하는 푸르름의 전망을 마음껏 탐미하고 구가합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나의 인생은 노동이 그 강령이라”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랬습니다. 조이스의 예술을 감당하기 위해서 꿈의 신기루 같은 미래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것은 천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힘겨운 노동과 거미의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 모두 열망하며 땀 흘려 그를 가꾸고 그의 문향(文香)을 사방에 꽃피워 미래의 통쾌한 자긍심을 만끽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래의 밝은 비전과 초월론적 희망이 아닌가 합니다.

“산디아스!(Sandhyas!) 산디아스!(성화) 산디아스!(聖和).”

여기 한 실없는 황혼의 학자가, 그의 노경의 패러디로, 아래 고전의 한 장면에서, 영웅-주인공인 혼(Haun: 젊은 조이스)의 희망찬 불사조의 외침을 힘주어 외쳐 봅니다.

... 빛나는 베뉴 새여! 아둔자我豚者여! 머지않아 우리들 자신의 회불사조稀不
死鳥 역시 자신의 회탑灰塔을 휘출揮出할지니, 황포한 불꽃이 (해)태양을 향해
활승活昇할지라. 그래요, 이미 암울의 음산한 불투명이 탈저멸脫直滅하도다!
용감한 족통足痛의 혼이여! 그대의 진행進行을 작업할지라! 불들지니! 지금 당
장! 승달勝達할지라, 그대 마魔여! 침묵의 수탉이 마침내 울지 로다. 서지가 동
東을 흔들어 깨울지니. 밤이 아침을 기다리는 동안 그대 걸을지라, 광과급경조
식운반자光破急輕朝食運搬者여, 명조明朝가 오면 그 위에 모든 과거는 낙면落
眠할지로다. 아면我眠. (FW 473.17-25)

2009. 5. 16

한국제임스조이스학회 명예회장